

보성 복내중, “Green과 Clean의 나라’ 싱가포르 다녀오다”

전교생 대상,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해외문화 탐방 실시 학교통폐합 지원금 및 K-water·보성교육청의 후원으로 진행

보성 복내중학교는 학교통폐합 지원금과 K-water와 보성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의 전교생 싱가포르 해외문화 탐방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3박 5일 일정한 싱가포르의 역사, 문화 관련 교육 장소를 탐방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였다. 해외문화체험 후 학생들은 배우고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작성하여 배움을 내면화하였다.

체험학습 2일차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와 머라이언 공원을 견학하며 학생들은 자력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과 물을 복으로 여기는 싱가포르의 문화를 이해하였다.

1학년 김주아 학생은 “싱가포르의 수자원 공사인 New water 견학으로 물 수입 국가인 싱가포르가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물의 소중함과 가뭄 극복을 위한 일상생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며 이

제부터라도 기사사에서 물을 아껴 쓰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더하여 김주아 학생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으로 머라이언 상을 뽑았다. “머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물로서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으로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물을 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싱가포르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소감으로 밝혔다.

체험학습 3~4일차 학생들은 한국 건설회사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마리나 베이 샌즈 빌딩을 견학하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체감했고, 보타니카든,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탐방하며 싱가포르의 자연환경, 먹거리, 놀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3학년 송영은 학생은 “코로나를 뚫고 가는 첫 해외 체험인 만큼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기대했던 이상으로 싱가포르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먹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무척 뿌듯했어요. 특별히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빌딩은 우

리나라의 회사에서 만들어져 자랑스러웠고 사진으로만 보던 건물을 실제로 보니 참 좋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보타니카든,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다양한 관광지와 새로운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어요”라며 체험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이번 해외문화체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도현 교사는 “이번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하고 수용하며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라며 교직의 첫발을 내딛는 해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박윤근 교사는 “기운, 습도, 식물, 음식, 풍경 등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의 큰 부분에 이르는 해외문화체험이 알



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감명 깊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물이나 도로, 이러한 건물이나 도로의 구축에 기여한 한국 건설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기한 표정을 짓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번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끼고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키우는 보성복내중학교 학생들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라며 생각을 밝혔다.

문경애 교장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한 뼘 더 성장하여 돌아왔습니다. 농

촌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 전라남도교육청 및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과 K-water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해외문화체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싱가포르 해외문화체험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전남 학생들의 해외 교육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중한 큰 꿈을 탐색하고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였고, 선생님들 또한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장성여자중, 직업인 멘토와 만남의 날 운영

학생·학부모 및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 얻어



장성여자중학교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출신 ‘직업인 멘토와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및 지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서 성장한 직업인을 통해 자신의 꿈을 재정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역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탄탄하게 가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 전문 직업인과 관련된 준비, 경험 등 직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보람을 듣고 질문을 통해 자신의 꿈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장성여자중학교는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며, 학생의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출신의 멘토를 선정하고 한 학생이 두 명의 멘토를 만나 강의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정치인, 언론인, 첨단분야 회사 경영인, 커피 연구가, 국제 변호사, 공무원, 교육전문가, 농업기반 요리가 등의 직업인 멘토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와 학창시절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학년 이승하 학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나정숙 교장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직업인을 초청해 삶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히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함평중,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으로 꿈을 키우다



함평중학교는 지난 16일 3학년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자기 핸드페인팅’ 직업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은 강사 소개와 도자기 역사와 종

이지연 작가 초청, 스파게티 접시 만들기 직업체험

류, 도자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싶은 그림 구상하기, 초벌 그릇에 도자기 안료로 그림 그리기, 유약 입히기, 도자기 직업의 방향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꿈을 키웠다.

김민정 교무행정사는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들과 교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행복했다”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도자기에 스케치하여 색을 입히는 과정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도자기 완성

한 후에는 일상에서 식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지연 작가는 2012년 아베이유 포트리 도자기 창업을 시작으로 도자기와 유화 개인전을 여러 차례 여는 등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작품에 담아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여수부영초, 전교생 대상 ‘감사의 달 행사’

여수부영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감사데이(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주변의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데이(day)’ 행사는 감

사와 사랑의 마음을 새기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성을 함양하고, 감사를 통해 존중, 배려, 나눔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여수=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